

지역 소식통

군산시간여행축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군산시는 잠미갤러리 공연장에서 9명의 축제·관광 전문가와 군산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새로운 방향성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향후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의 개념을 갖춘 난장 개념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근대역사의 사건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안 ▲환경친화적 축제, 슬로우 라이프 등의 반영을 통한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기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각각의 주제발표에 따른 지정 토론과 함께 전반적인 축제 발전과 평가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명품축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시청 인제안정국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3월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 1월 이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이나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재(휴)학생으로 전국 모든 대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3월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신청학생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하며 접수가 마감되면 군산시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이자 조화를 거쳐 심의 후 2016년 1월 이후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반기 발생이자를 7~8월 말 경 지원할 예정이다.

고대성 인재안정과장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동아시아 지역 8개국 청년 예비창업자

익산 역사·전통문화 체험

참가단, 풍물단 공연 관람·백제의상 체험·보석박물관 관람 등 일정 소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동아시아 지역 8개국 청년 예비창업자 160여 명이 지난 1일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보석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신문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의 교류행사로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지역 8개국에서 2단계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과 지난 3월 29일부터 함께 전북도에 머물며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도 체험한다. 참가단은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익산시립풍물단 공연 관람, 백제의상 체험, 보석박물관 관람 등 일정을 소화했다. 백제왕도 익산의 서동·선화 사랑 이야기를 활용해 서동요 홍보영상 직접 제작하여 SNS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북도와 익산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맛봤다. 특히 이번 참가단은 한류문화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과 SNS 등 인터넷 매체 활용에 능숙한 20대

대학생들이지만, 청년 창업자로서 현재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향후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설 예비 소비세대로는 점에서 전북도와 익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미래 관광, 미스 수요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 보석박물관을 찾은 아시아 지역 대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간다면 익산관광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총칙·조합활동으로 이뤄져... 근무여건 개선·공공서비스 향상 기대

익산시(시장 정현윤)는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현윤 익산시장과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노조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수시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는 과정에서 98개조에 이르는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서는 총칙, 조합활동, 근무조건 등 8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의 준수 의무 ▲사무실 환경 개선 ▲후생복지시설 확충 ▲인권 및 여성권익 신장 등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정현윤 익산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직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노사간 협력을 모아 정말 살고 싶은 익산시를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익산시 전 직원에게 인사권을 돌려주는 등 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간 협력을 통해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원광대병원 강동백 교수,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위장관내장항문외과에 재직 중인 강동백 교수가 부산 BEXCO에서 최근 개최된 2017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17)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동백 교수는 "Laparoscopic Subserosal Enucleation For

Sunmuosal Tumor on ECF" (위식도경계부에 위치한 위점막하 종양의 복강경 정맥하 절제술)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위식도 경계부에 발생한 거대한 위점막하 종양의 치료에 하부식도괄약근(Lower Esophageal Sphincter)의 손상이나 협착

없이 복강경 정맥하 절제술에 대한 안전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했다. 위암을 비롯한 위장관종양에 대한 전세계 임상 및 기초 연구자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치료법과 최신 치료에 대한 열린 토의와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익산=정왕원기자



'주얼패리스 보석대축제' 4월 5일 개최

보석산업의 중심지인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2017 주얼패리스 보석대축제'가 4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익산시 왕궁면 주얼패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천년의 사랑! 천년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30% 특별할인행사과 세계유신(백제)문화상품 특별 전시,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 시연,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특성화사업단 운영 등 다양한 보석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사)주얼패리스협의회(회장 정춘호)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주얼패리스 60여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날 수 있다.

주얼패리스 관계자는 "축제에서 선보이는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과 장인의 솜씨로 빛나는 주얼리 작품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연인 가족 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세무과 전현정 주무관,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군산시는 전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군산시 세무과 전현정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주제로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급변하는 납세환경에 부합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송달책임 및 송달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 지리산하이츠콘도에서 열린 2017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는 급변하는 지방세제 환경에 대응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도·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지방세 심의위원 전북도급과 지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등 1백30여 명이 참여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향상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전현정 주무관은 지방세 고지서 이젠 모바일로 라는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고액채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본격 추진

군산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채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채납자 62명(채납액 약 15억 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연구주제로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급변하는 납세환경에 부합한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 제시로 송달책임 및 송달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에서는 공매 추진에 앞서 4월 5일까지 고액채납자 62명에게 부동산 공매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채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공매고지제와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채납처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고지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채납자에 대해선 5월 12일

군산=김판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text: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